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Sense of Community Among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 and Self-Esteem

1차원고접수: 2023.10.10. 수정원고접수: 2023.11.29. 최종게재결정: 2023.12.13.

김유정¹ · 박유경² · 이금규³

¹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²University at Albany-SUNY 교육 심리학과, 박사과정

³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Kim, Yoojung¹

Park, Yookyeong²

Lee, Keumkyu³

¹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Educational Psychology & Methodology, University at Albany

³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국문초록 사회적 위기에 대해 개인의 공동체적 책임과 공과를 공유하는 심리적 기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주목하여 주변의 맥락, 개인 내적인 변인, 그리고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의 만 12세 ~ 만 17세 청소년(남 900명, 여 772명)과 그 부모(부 203명, 모 1,469명), 총 1,672쌍을 대상으로 SPSS 26.0 및 PROCESS macro version 4.0의 Model 6를 이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 및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효능감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했다. 둘째,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즉 부모가 효능감을 느낄 때, 청소년은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아존중감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공동체의식으로 이어진다. 이는 청소년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해 부모효능감을 증진하는 개입과 청소년의 일차적 주변 환경인 가족과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부모효능감, 공동체의식,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아동종합실태조사

Abstract Social crises, such as the global climate crisi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psychological mechanisms of responsibility for the community or shared merits and demer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xt around adolescents, their internal variables, and the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ce when social identity is established. A total of 1,672 pairs of adolescents aged 12 to 17 years ($M = 14.95$, 900 males, 772 females) and their parents (203 fathers, 1,469 mothers) from the National Survey on Children in Kore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PROCESS macro to conduct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analysis and bootstrapping tests. First, the direct impact of parenting efficacy on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was significant. Secon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were significant. In other words, when parents feel efficacy, adolescents perceive family relationships positively, and self-esteem leads to a higher level of sense of community.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interventions that promote parenting efficacy, support adolescents' primary environments, which are their families, and boost their self-esteem to foster a sense of community.

Keywords parenting efficacy, sense of community, family relationship, self-esteem, the national survey on childre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점차 사회적 위기나 문제 상황에 대해 개인의 공동체 에 대한 책임과 공과를 공유하는 심리적 기제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동체의식은 한 사회의 질서 유지의 기반이 되고,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김성훈, 2015). 사회적인 위기

* 이 논문은 2022년 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 내용을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김유정 (Kim, Yoojung)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dbwjdvva@snu.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가 도래했을 때 각 개인은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개인적 차원의 수준을 넘어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박혜숙, 2019). 청소년기는 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이후 성인기의 사회참여와 시민성으로 이어진다(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더불어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아동청소년의 개인 내적인 문제를 해소하거나(박현정 등, 2015), 외현화 문제를 완화(한대동, 오경희, 2013)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하아영, 조한익, 2020)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건강한 발달에 있어 공동체의식은 중요한 개념이며,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내면화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동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Pooley, Pike, Drew, & Breen, 2002)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지지하는 청소년 주변의 사회적 맥락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박혜숙, 2019)과, 지역 또는 연고에 따른 배타적 공동체의식 형성 및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박가나, 2009)는 공동체의식 약화의 기초를 지지한다.

공동체의식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호 간의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는 의식(박가나, 2009)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혹은 유대감(박현정 등, 2015)으로 정의된다.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내적인 특성뿐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데(박혜숙, 2019),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또래관계(김상미, 남진열, 2011;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와 교사와의 관계(박혜숙, 2019)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청소년기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Shaffer & Kipp, 2010)되어 왔는데, 특히 공동체의식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박수원, 김셋별, 2016)될 수 있다고 밝혀져 왔기 때문이다. 부모가 수용적 양육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시민의식이 발달하고(김위정,

2012),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방식이 공동체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유난숙, 2015). 다만, 부모가 스스로 양육을 잘 해낼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믿음인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가 보고(임현주, 2019; 한혜림, 2021)되어 옴에도 부모효능감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 이와 함께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거나(김태한, 2017), 중학교 이후에는 부모의 지원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공동체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전현정, 정혜원, 2017)을 미친다는 일관되지 않은 보고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모 요인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영향과 더불어 가족 간의 유대 또한 사회화의 주요 요소로 주목받아 왔는데(Wentzel & McNamara, 1999), 가족관계 내에서 유대감을 토대로 이타적인 행동 방식이나 책임감 등의 긍정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더 확장된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사회 인식 및 참여를 촉진함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가족관계 친밀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이 밝혀져 왔으며(허영주, 2019), 가족 간 유대가 높다고 보고된 아동들이 타인을 보살피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더 많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Romig & Bakken, 1992). 이와 함께 학교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정 환경의 상대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김위정, 2012). 특히 부모효능감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나타났는데,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관계는 서로 관련이 있었고(조찬희, 김교현, 이형용, 2021),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Saltali, 2020), 부모 효능감, 가족관계, 공동체의식 간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부모의 개인적 특성은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를 매개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박명숙, 2010),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청소년은 타인에 대한 수용과 협력으로 사회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공동체의식 또한 높게 나타남이 보고되어왔다(최정현, 2019; Peterson, Speer, & McMillan, 2008). 더불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직접적인 관계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강가영, 장유미, 2013; 박혜숙, 2019; 양영미, 김진석, 2015; 정수정, 김소은, 정익중, 2018). 이때, 자아존중감은 부모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속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과정 안에서 형성(Pipp, Easterbrooks, Harmon, 1992)되며, 부모의 정서적인 특성이나 양육 관련 요인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김원숙, 2019)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는 유아기의 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김현미, 도현심, 2004; 윤지영, 허은정, 2017) 청소년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효능감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사회정서 적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보고되었지만(Shumow & Lomax, 2002),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간의 관계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김현미, 도현심, 2004; Çekic, Karageyik, 2021)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의 연령, 성별, 그리고 가구구분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연령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5학년에 비하여 6학년에서 공동체의식의 모든 영역이 낮아졌다는 점(구정화, 2015), 공동체 역량을 예측함에 있어서 고등학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한다는 점(윤영, 성지훈, 2021), 그리고 가구소득이 가족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김위정, 2012)이 보고되어 왔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때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진된다는 연구(남영자, 박태영, 2009)에 따라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사이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부모효능감,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국의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4,039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등, 2019)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통계청 누리집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았다. 주 양육자가 청소년의 부모인 경우만을 포함하여, 만 12세 ~ 만 17세 청소년($M = 14.95$, 남 900명, 여 772명)과 그 부모(부 203명, 모 1,469명), 총 1,672쌍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와 청소년 각각 부모 변인, 청소년 변인 관련 문항에 직접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1,672)

			<i>n</i>	(%)
Adolescents	Gender	Male	900	(53.8)
		Female	772	(46.2)
	Age	Mean	14.95	
		Range	12 ~ 17	
Parents	Relationship with adolescents	Father	203	(12.1)
		Mother	1469	(87.9)
	Classification of household income	Nonpoor	935	(55.9)
		Poor	737	(44.1)

2. 측정도구

1)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지도하며,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다는 부모 역할 수행 능력과 관련한 부모 자신의 믿음의 정도(Johnston & Mash, 1989)로서,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신숙재(1997)가 변안한 한국판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척도 중 ‘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다룬다’ 등의 효능감 9개 문항을 사용했다(류정희 등, 2019).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부모효능감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76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청소년이 지각하는 주보호자와의 가족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안된 척도가 사용되었다. ‘보호자와 대화를 많이 한다’, ‘나는 보호자를 사랑한다’, ‘보호자는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신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Rosenberg(1979)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며, 이를 위해 Rosenberg(1979)가 제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76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호혜적 관계를 유지,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실천적 의식(박가나, 2009; Chavis & Wandersman, 1990)으로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제안된 척도를 사용했다. ‘나는 남을 위해 내 것을 나눈다’, ‘나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잘 지킨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공동체의식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78로 나타났다.

5) 통제변수

이 연구는 선행연구(구정화, 2015; 김위정, 2012; 윤영, 성지훈, 2021)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 청소년의 성별, 가구구분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가구구분은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로 구분되고, 저소득층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포함한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6.0을 이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연구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기술통계 및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version 4.0의 Model 6(Hayes, 2022)를 사용해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k = 10,000$, 95% 신뢰구간)을 통해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모효능감,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본 분석에 앞서, 해당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기술통계 산출 및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의 왜도 범위는 [-0.23, 0.29], 첨도 범위는 [-0.18, 0.77]로 나타나 각각의 절댓값이 2와 7을 넘지 않았으며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Pearson 상관분석 결과에서,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r = .43$, $p < .00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r = .32$, $p < .001$),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r = .32$, $p < .001$)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지각한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r = .40$, $p < .001$), 청소년의 공동

체의식($r = .54$, $p < .001$) 또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r = .33$, $p < .001$)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3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부모효능감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 = .31$, $p < .001$),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한 영향($\beta = .09$,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모형으로 상정한 모든 회귀모형 및 각 연구변인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Bootstrapping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참조). 먼저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가구구분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높은 공동체의식을 가진다($\beta = .18$, 95% CI [.16, .21]). 또한,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높은 공동체의식으로 이어졌다($\beta = .02$, 95% CI [.01, .03]). 마지막으로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높았으며, 이는 높은 공동체의식으로 이어졌다($\beta = .02$, 95% CI [.01, .02]).

Table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1,672$)

Variables	1	2	3	4
1	1			
2	.43***	1		
3	.32***	.40***	1	
4	.32***	.54***	.33***	1
Range	1.78 ~ 5.00	1.25 ~ 4.00	1.40 ~ 4.00	1.25 ~ 4.00
<i>M</i>	3.33	3.07	2.83	2.94
<i>SD</i>	.48	.45	.41	.38
Skewness	0.13	-0.23	0.29	-0.13
Kurtosis	0.19	0.33	-0.18	0.77

Note. 1: Parenting efficacy; 2: Adolescents'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 3: Adolescents' self-esteem; 4: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 $p < .001$.

Table 3.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Sense of Community ($N = 1,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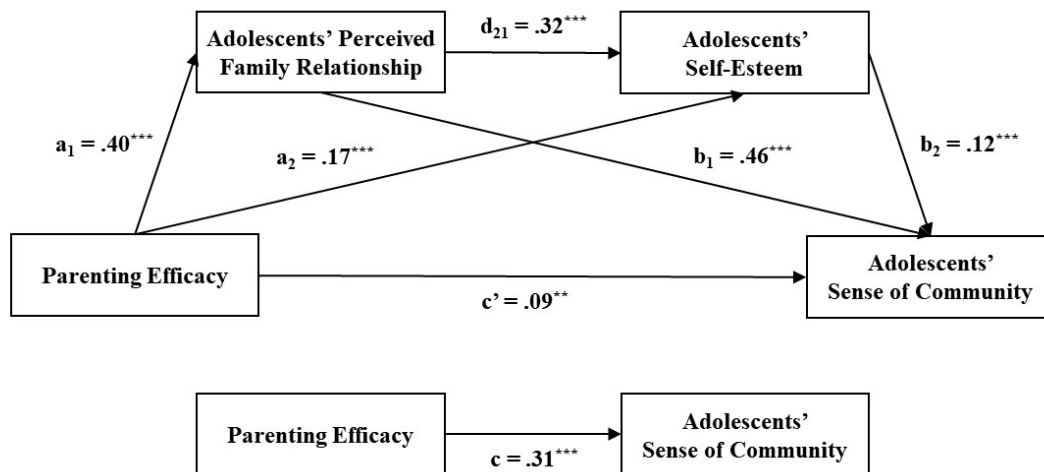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Pathway	β	B	$S.E.$	t	95% CI	
							Lower	Upper
Adolescents'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	Parenting efficacy	a_1	.40	.37	.02	17.66***	.33	.41
	Age			-.02	.01	-2.65**	-.03	-.00
	Gender			-.05	.02	-2.50*	-.09	-.01
	Household income			.09	.02	4.59***	.05	.14
	Constant			2.04	.12	26.48***	1.82	2.27
	$F(4,1667) = 104.90, p < .001, R^2 = .20$							
Adolescents' self-esteem	Parenting efficacy	a_2	.17	.15	.02	6.93***	.11	.19
	Family relationship	d_{21}	.32	.29	.02	12.84***	.24	.33
	Age			.01	.01	1.13	-.00	.02
	Gender			-.00	.02	-.20	-.04	.04
	Household income			.03	.02	1.34	-.01	.06
	Constant			1.35	.12	11.70***	1.13	1.58
	$F(5,1666) = 75.60, p < .001, R^2 = .18$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Parenting efficacy	c'	.09	.07	.02	3.90**	.04	.11
	Family relationship	b_1	.46	.39	.02	19.14***	.35	.43
	Self-esteem	b_2	.12	.12	.02	5.56***	.08	.16
	Age			-.00	.00	-.71	-.01	.01
	Gender			.00	.02	.05	-.03	.03
	Household income			-.02	.02	-1.18	-.05	.01
	Constant			1.24	.10	11.87***	1.03	1.44
	$F(6,1665) = 127.22, p < .001, R^2 = .31$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Parenting efficacy	c	.31	.25	.02	12.85***	.21	.28
	Age			-.01	.01	-1.73	-.02	.00
	Gender			-.02	.02	-1.13	-.06	.01
	Household income			.02	.02	1.26	-.01	.06
	Constant			2.26	.10	21.57***	2.06	2.47
	$F(4,1667) = 49.30, p < .001, R^2 = .11$							

Note. Adolescents' gender: 0 = Female; 1 = Male. Classification of household income: 0 = Poor; 1 = Nonpoor.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Bootstrapping Estimates and Confidence Intervals for the Indirect Effects ($N = 1,672$)

Pathway	bootstrap estimates		95% CI	
	β	$S.E.$	Lower	Upper
Parenting efficacy $\rightarrow$ Family relationship $\rightarrow$ Sense of community	.18	.01	.16	.21
Parenting efficacy $\rightarrow$ Self-esteem $\rightarrow$ Sense of community	.02	.01	.01	.03
Parenting efficacy $\rightarrow$ Family relationship $\rightarrow$ Self-esteem $\rightarrow$ Sense of community	.02	.00	.01	.02



** $p < .01$. *** $p < .001$.

Figure 1. The Results of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Sense of Community

IV. 논의 및 결론

청소년기의 공동체의식은 이후 성인기의 사회참여와 시민성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심리정서 및 학교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과 배타적 공동체의식 및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하여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지지하는 사회적 맥락이 미약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일차적 주변 환경인 부모, 가족, 그리고 개인 내적인 변인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효능감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김현미, 도현심, 2004) 또는 사회적 기술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심미경, 우주영, 2019)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에게서 분리되기 시작하며 또래에게 몰두하는 시기로 여겨져 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고취함에 있어서 청소년

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지도하며,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다고 부모 자신이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청소년 공동체의식과 관련한 통제변수인 청소년의 연령, 성별, 그리고 가구구분을 통제한 후에도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부모 자신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지도하며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다고 생각할 때 청소년이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와 같이 청소년이 지지받을 때 청소년의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고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유능감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 연구(임현주, 201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김선숙, 안재진, 2012; 최정현, 2019)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여종일, 2015) 및 부모-자녀 관계(Bulanda & Majumdar, 2009)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기존의 연구,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밝힌 기존연구들(권대희, 오윤자,

2004; 조아라, 현운강, 2008)과 같이, 부모효능감의 증진이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공동체의식의 함양으로 이어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청소년이 타인 수용과 협력을 통해 크고 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기반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식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위기에 대해 책임과 공과를 공유하는 심리적 기제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의 속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에서의 부모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므로,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부모효능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느끼는 효능감이 자녀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으며,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청소년 또한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며 자녀와 부모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가령, 서울시 가족센터 가족학교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청소년기 부모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가족학교에서 또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운영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차 데이터인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구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통제하였지만 2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살펴 보았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있어 모든 구성원과의 관계가 아닌 보호자와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2018년도에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집단활동이 어려웠던 2020년도 이후의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설명하는

모델과 유의성은 이 연구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한 청소년을 연구대상에 포함하고, 이 연구의 결과와 함께 살펴본다면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일차적 주변 환경인 가족과 청소년 개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그 영향력을 밝혀내고자 하였으나, 또래애착, 학교생활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변인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의 관계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므로(김상미, 남진열, 2011; 송연주 등, 2015) 향후 가정 및 학교 맥락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남아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사회적 정체성을 갖추어 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의 발달과 관련된 기제들과 그 경로를 밝혀내었고, 특히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경시되기 쉬운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사회로서 가족과 부모의 영향력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모효능감이 가족관계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공동체의식의 발달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돕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구정화 (2015).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초등학교 5, 6학년의 차이 연구. *시민교육연구*, 47(1), 1-24. <https://doi.org/10.35557/trce.47.1.201503.001>
- 권대희, 오윤자 (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2(1), 115-127.
- 김상미, 남진열 (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선숙, 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https://doi.org/10.16999/kasws.2012.43.1.339>
- 김성훈 (2015). 청소년의 봉사 활동과 공동체의식: 이원고정 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6(2), 237-259.

- <https://doi.org/10.14816/sky.2015.26.2.237>
- 김원숙 (2019).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대한 연구 동향: 국내 주요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2(1), 30-45.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태한 (2017). 근접맥락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남녀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발달에 미치는 효과: 다집단성장곡선모형을 활용한 성별효과 분석. *시민교육연구*, 49(2), 1-25. <https://doi.org/10.35557/trce.49.2.201706.001>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남영자, 박태영 (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4), 47-71.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 (2019).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명숙 (201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193-218. <https://doi.org/10.15709/hswr.2010.30.2.193>
- 박수원, 김셋별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5-32. <https://doi.org/10.14816/sky.2016.27.2.5>
- 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4), 105-127. <https://doi.org/10.15753/aje.2015.12.16.4.105>
- 박혜숙 (2019). 공동체의식 변화양상과 개인, 가정, 학교특성이 아동-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5(1), 555-576. <https://doi.org/10.24159/joec.2019.25.1.555>
-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2), 207-231. <https://doi.org/10.24159/joec.2019.25.1.555>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미경, 우주영 (2019). 어머니의 양육민감성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5), 69-82. <https://doi.org/10.5723/kjes.2019.40.5.69>
- 양영미, 김진석 (2015).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7(4), 309-328. <https://doi.org/10.19034/KAYW.2015.17.4.14>
- 여종일 (2015).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7(1), 101-112.
- 유난숙 (2015). 중산층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방식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3(3), 319-329.
- 윤영, 성지훈 (2021).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공동체 역량 예측변인 탐색: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여. *청소년학연구*, 28(4), 383-410. <https://doi.org/10.21509/KJYS.2021.04.28.4.383>
- 윤지영, 허은정 (2017). 다문화 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775-798. <https://doi.org/10.24159/joec.2017.23.6.775>
- 임현주 (2019). 어머니의 부모유능감, 부모불안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4(5), 133-156. <https://doi.org/10.20437/KOAECE24-5-07>
- 전현정, 정혜원 (2017). 순차적 경로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도의 잠재집단 간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9), 335-360.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9.335>
- 정수정, 김소은, 정익중 (201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초등학교 시기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9(6), 15-25. <https://doi.org/10.5723/kjes.2018.39.6.15>
- 조아라, 현온강 (2008).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26(4), 135-148.
- 조찬희, 김교현, 이형용 (2021). 부모수준과 가족관계가 부모효능감과 양육불안감을 매개로 초등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식경영연구*, 22(2), 167-187. <https://doi.org/10.15813/kmr.2021.22.2.009>
- 최정현 (201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종단적 융합연구-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9(12), 62-70.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12.062>
- 하아영, 조한익 (2020). 중학생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공동체의식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국어, 영어, 수학과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2), 109-135. <https://doi.org/10.15284/kjhd.2020.27.3.109>
- 한대동, 오경희 (2013). 초등학교에서의 공동체적 수업실천과 공동체의식이 학교폭력 자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3(4), 207-235. <https://doi.org/10.32465/ksocio.2013.23.4.008>
- 한혜림 (202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 양육효능

- 감의 군집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30(5), 771-781.
<https://doi.org/10.5934/kjhe.2021.30.5.771>
- 허영주 (2019). 가족관계 친밀성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3), 429-452.
<https://doi.org/10.24159/joec.2019.25.3.429>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https://doi.org/10.1111/1529-1006.01431>
- Bulanda, R. E., & Majumdar, D. (2009).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2), 203-212. <https://doi.org/10.1007/s10826-008-9220-3>
- Çekiç, A., & Karageyik, K. (2021). Analyzing parenting stress in terms of parental self-efficacy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and Counseling*, 6(40), 14-34.
<https://doi.org/10.35631/IJEP.640002>
- Chavis, D. M., & Wandersman, A. (1990).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55-81.
<https://doi.org/10.1007/BF00922689>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SOC)* [Database record]. APA PsycTests. <https://doi.org/10.1037/t01311-000>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802_8
- Peterson, N. A., Speer, P. W., & McMillan, D. W. (2008). Validation of a 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 Confirmation of the principal theory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1), 61-73. <http://doi.org/10.1002/jcop.20217>
- Pipp, S., Easterbrooks, M. A., & Harmon, R. J. (1992).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knowledge of self and mother in one-to three-year-old infants. *Child Development*, 63(3), 738-750.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2.tb01658.x>
- Pooley, J. A., Pike, L. T., Drew, N. M., & Breen, L. (2002). Inferring Australian children's sense of community: A critical exploration. *Community, Work & Family*, 5(1), 5-22.
<https://doi.org/10.1080/13668800020006802a>
- Romig, C., & Bakken, L. (1992). Intimacy development in middle adolescence: Its relationship to gender and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325-338.
<https://doi.org/10.1007/BF01537021>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altali, N. D. (2020).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association between preschool father-child relationship and parental stress. *Participatory Educational Research*, 7(2), 230-240.
<https://doi.org/10.17275/per.20.31.7.2>
- Shaffer, D. R., & Kipp, K. (2010).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Wadsworth: Cengage Learning.
- Shumow, L., & Lomax, R. (2002). Parental efficacy: Predictor of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outcome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2), 127-150.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202_03
- Wentzel, K. R., & McNamara, C. C. (1999).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motional distress, and prosocial behavior in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1), 114-125.
<https://doi.org/10.1177/0272431699019001006>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